



환자 눈높이 맞춘 편안한 응급실 실현! 고려대 안암병원 응급의료센터



▲ 빨간색, 노란색, 녹색, 파란색을 활용해 공간을 구성한 응급의료센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실이 달라졌다. 환자의 눈높이에 맞춰 공간을 재구성하고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활용하여 진료프로세스를 개선해 환자 및 보호자의 편의와 의료진의 효율적 진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일반적으로 응급실은 많은 환자 및 내원객이 드나들고, 검사실이 어디인지, 담당 의료진이 누구인지 몰라 어수선했다. 환자가 안정감을 느끼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실은 한눈에 들어오는 안내를 비롯해, 각 병상의 프라이버시를 강조한 공간구성과, 정돈된 구역

구분, 찾기 쉬운 검사실 등을 갖춰, 응급실이라서 당연히 불편을 감수해야한다고 생각했던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깬다.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당황한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는 글로 표현된 안내판을 잘 눈에 들어오지 않기 마련이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응급실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쉽도록 모식도로 표현한 안내벽을 비롯해, 색을 활용한 공간안내를 도입해 환자 및 보호자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있다.

색을 활용해 환자공간을 네 부분으로 나눴다. 경환자는

녹색, 경증환자는 노란색, 중증환자는 빨간색의 공간에서 진료를 받게 되며, 검사실은 파란색으로 구분되었다. 각 공간과 동일한 색으로 매칭해 각 구역을 담당하는 의료진이 근무하는 공간을 표시함으로써 환자 및 보호자들이 담당 의료진이 누구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분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지난해 발족한 환자최우선디자인위원회를 통해 희망병동 개설, 응급실 개선 등 끊임없는 혁신활동으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추구하는 환자최우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화발전기금기부 기부내역(이백)

14.12.26	백두권	₩ 1,000,000	15.02.25	(故)남경진	₩ 10,000,000	15.03.27	재단법인 석명과학재단	₩ 12,000,000
14.12.26	김유국	₩ 1,000,000	15.02.29	하상현	₩ 10,000,000	15.03.27	이귀동	₩ 1,000,000
15.01.10	의과대학 43회 동기회	₩ 220,300,000	15.03.03	38회 장학금(박용채)	₩ 2,500,000	15.02.12	강명순, 고윤송	₩ 115,500
15.01.20	김려수	₩ 1,000,000	15.03.04	김무필	₩ 2,000,000	15.02.13	이금연	₩ 500,000
15.01.15	강호경	₩ 30,000,000	15.03.04	조우성	₩ 2,000,000	15.02.25	2009년 신임교원 장학회	₩ 1,600,000
15.01.12	김혜경	₩ 1,000,000	15.03.04	38회 장학금(지혜란)	₩ 2,500,000	15.03.06	미플란트치과의원	₩ 15,000,000
15.01.12	김혜경	₩ 1,000,000	15.03.04	구자국	₩ 200,000	15.03.25	한을순	₩ 10,000,000
15.01.30	장건호	₩ 1,200,000	15.03.04	임순광	₩ 5,000,000	15.03.31	송백란	₩ 1,000,000
15.01.31	조국형	₩ 2,000,000	15.03.04	오재훈	₩ 3,000,000	15.03.31	안중빈	₩ 3,000,000
15.01.31	이동우	₩ 5,353,000	15.03.04	우수경	₩ 1,000,000	15.03.31	최준성	₩ 3,000,000
15.01.31	남종현	₩ 80,960,000	15.03.04	이우섭	₩ 2,000,000	15.04.03	주한수	₩ 5,000,000
15.02.26	김연희	₩ 5,000,000	15.03.05	원남희	₩ 30,000,000	15.04.07	소용녀	₩ 100,000,000

암으로 잃은 여성성, 재건술로 되찾는다

[기획특집 1]



▲ 성형외과 윤을식 교수의 성형재건 로봇수술

3년 전 유방암으로 오른쪽 유방을 모두 제거한 최모(43, 여) 씨는 유방암제거수술 당시 경제적인 여건으로 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재건수술을 미뤘었다. 여성성을 잃은 상실감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최 씨는 최근 유방재건수술이 건강보험에 적용된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수술을 결심했다.

유방암은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발생연령도 점점 낮아져 3~40대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유방암의 치료는 암 발병부위의 유방조직을 제거해야하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와 동시에 유방을 잃게 된다. 여성성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가슴을 잃는다는 것은 유방암 환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이 아닐 수 없다.

암치료를 위해 여성스러움의 상징인 가슴을 절제하면 환자는 자신감이 떨어지고 대인관계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며, 심지어 심한 우울증이나 상실감에 빠지기 쉽다. 이러한 고통을 줄이고 환자의 삶의 질을 극대화 하기위해서 최근에는 유방암 수술과 동시에 유방재건수술이 이뤄지는 즉시재건술을 받는 환자가 늘고 있다.

특히 고려대 안암병원 유방센터 윤을식 교수(성형외과)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로봇유방재건수술은 로봇을 이용해 흉터를 최소화하고 정밀한 수술이 가능한 최선의 방법이다.

로봇을 이용한 유방재건의 가장 큰 장점은 흉터가 작다는 점이다. 기존의 절개수술을 통한 가슴재건수술은 2~30cm 가량의 흉터가 등 부위에 크게 남는다. 하지만 로봇수술을 이용하면 3cm 가량의 절개만으로 충분하고, 그 절개선도 겨드랑이 안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흉터가 전혀 걸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수술하는 의사의 조작이 로봇팔을 거치면서 손떨림이 보정되고 훨씬 더 미세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경 및 근육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어 치료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로봇을 이용한 유방재건은 자가조직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등의 근육을 절개해 가슴 부위로 옮겨 유방을 재건하는 광배근 유경피판술을 할 경우에 가능하다. 특히 유방 절제술을 하면서 유방피부를 남겨놔, 등에서 피부를 제외한 근육 조직만을 절개하는 수술해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최근에는 보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등 근육으로 보형물을 감싸는 방식으로 유방을 재건하기 때문에 로봇수술을 이

용할 수 있다. 단순히 보형물만 삽입하면 보형물이 비취 보이거나 피부가 주름져 보이기도 하고, 보형물 주위에 피막이 형성돼 유방이 딱딱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등 근육으로 보형물을 덮어줌으로서 피막 구축은 물론 유방 비대칭도 예방한다.

일반 수술에 비해 부작용도 적다. 등 근육을 이용한 일반 광배근 유경피판술은 등 조직을 떼어낸 빈 공간에 물이 차는 장액종이 생겨 오랜 시간 동안 배액관을 가지고 있거나 주사기로 고인 것을 빼내야 하며, 심한 경우에는 피막을 제거하는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데, 로봇을 이용하면 등 부위에 정밀하게 꼭 필요한 조직만 떼어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수술에 비해 조직을 떼는 범위가 훨씬 줄어들고, 장액종이 발생하는 기간 역시 매우 짧다. 때문에 수술 후 입원 기간도 기존 2주에서 3~4일로 훨씬 줄어들어 사회생활로 보다 빨리 복귀가 가능하다.

윤을식 교수는 "로봇수술은 기존의 수술방법에 비해 기능적, 미용적으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흉터걱정없이 환자들의 자존감을 지키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최소화하며 최상의 치료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4월부터 유방재건술 건보적용




유방전절제술을 받은 유방암 환자가 유방재건술을 받으면 4월부터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1500만원에 달하던 유방재건술의 환자부담금이 200만~4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유방재건수술은 크게 보형물을 넣는 것과 자가조직(등근육, 복부근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뉜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 2가지 방법을 함께 시행하기도 한다. 유방재건술은 미용성형과 달라 환자 상태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충분한 임상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요한다.

유방재건술은 자가조직을 이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8~12시간, 경험이 부족한 의사는 24시간까지 걸리는 힘든 수술이다.

경험이 많은 전문의 수술도 합병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번 건보 적용으로 유방수술 경험이 부족한 의료진까지 유방재건술에 가세할 우려가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윤을식 고려대 안암병원 성형외과 교수는 "유방전절제술은 연간 1만여 건 이뤄지지만 유방재건술은 연간 1000건가량으로 20%에 달하는 선진국 재건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4월부터 건보급여가 적용되면 유방재건술이 현저하게 일반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유방재건술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로 외과·산부인과 등 재건훈련을 거치지 않은 다른 과 의사들까지 유방재건술에 무분별하게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이로 인한 합병증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해 국민건강과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 매일경제 이병문 의료전문기자

내 귓속은 건강할까? 귀에서 고름 흐르는 중이염 주의

[건강정보 1]



▲ 이비인후과 임기정 교수


중이는 외이도 안에 있는 고막의 바로 뒤편의 공간으로, 고막의 진동을 와우, 즉 달팽이관으로 소리를 전달해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런 중이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 흔히 얘기하는 중이염인데 미생물에 의해 감염되거나 이관의 기능장애로 인해 중이강 내에 염증성 병변이 발생하는 것이다.

중이염은 감기와 병행되어 더욱 심한 증세로 나타나는데 귀에서 고름이 흘러나오는 이루가 가장 흔한 증상이며, 청력저하, 이명, 어지럼증, 두통, 안면신경마비 등 다양한 증세가 나타나며, 증상에 따라 급성 중이염, 삼출성 중이염, 만성중이염으로 나뉜다. 특히 만성중이염은 염증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된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면 청력손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이비인후과 임기정 교수는 “현재 중이염을 앓고 있다면 심하게 코를 풀지 말고,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변비가 있어 힘을 주는 등 귀에 압력이 가는 행동을 하는 것은 삼가고 감기가 들지 않도록 몸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치료 및 수술 후 귀-고막의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기까지는 최소한 6주에서 6개월까지 소요되며 반드시 정기

적인 검진이 필요하다” 고 조언했다.

간혹 중이염을 앓는 환자들이 흘러나오는 고름 때문에 귓 속을 솜으로 틀어막거나 확인되지 않은 물질을 귀에 넣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런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전문의는 말한다. 임 교수는 “귀 안쪽을 솜으로 꼭 틀어막아서 이루가 나오지 못하게 하면 주변 다른 부위로 염증이 전파되거나 엉뚱한 곳으로 터지는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며, “항생제만 먹고 멈추면 그냥 지내면서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후 시간이 지나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증상이 심화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고 조언했다.

또 “이루, 이통, 청력저하, 이충만감, 이명, 안면신경마비, 어지럼, 두통 등이 있는 분들은 귀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확실히 검사를 받아보아야 한다.” 며, “귀는 머리에 달린 두 개의 귓바퀴가 아니라 그 안에 여러 복잡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뇌, 주요혈관과의 상관관계를 가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고 주의를 요했다. 

도움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이비인후과 임기정 교수

나도 모르게 꾸벅꾸벅... 어김없이 찾아온 춘곤증

[건강정보 2]




▲ 가정의학과 김양현 교수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하지만 반갑지 않은 불청객도 함께 왔다. 충분히 잠을 자도 졸음이 쏟아져 눈이 저절로 감기는가하면 식욕까지 떨어지게 만드는 불청객은 봄철피로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 춘곤증이다.

춘곤증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계절적 변화로 인한 생체리듬의 변화가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봄이 오면 밤은 짧아지고 낮은 길어져 기온이 올라간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나른해 지고 기존의 겨울 동안 적응했던 피부나 근육이 따뜻한 기온에 맞추어지게 된다. 이와 동시에 수면과 일생생활의 패턴이 달라지면서 우리 몸 안의 생체 시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과도기에서 춘곤증이 나타나게 된다.

춘곤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피로, 졸음, 식욕부진, 소화불량, 현기증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겨우내 운동부족이었거나 새로운 과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과로로 피로가 누적될수록 춘곤증이 심하게 나타난다. 이는 신체의 리듬이 회복되는 데에 필요한 여력이 충분치 않아 신체의 적응능력이 떨어져 악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겨울 동안 규칙적인 운동이나 영양섭취, 균형 잡힌 생활을 통해 체력을 보충을 해두는 것이 봄에 발생하는 춘곤증을 이기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코골이가 심할 경우 낮에 주간 졸림이 발생할 수 있어 춘곤증에 더 취약해 지기 쉽다.

이처럼 춘곤증을 최소화하고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소에 규칙적인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규칙적인 식사를 비롯하여 음주, 과다 흡연, 카페인 음료의 섭취 등을 자제하고, 특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건강 상 이상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밤잠을 설쳤거나 과로를 했다면 낮에 잠깐 토막잠을 자는 것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무엇보다 규칙적인 수면습관과 쾌적한 수면환경 유지도 중요하다. 춘곤증을 이기는 운동으로는 전체적으로 몸을 펴주고 늘여주는 스트레칭이나 체조가 좋고, 사무실이나 좁은 공간에서 벗어나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 좋다. 운동은 가볍게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것이 좋다.

간혹 간염, 결핵, 당뇨 등의 다른 질환의 초기증상도 춘곤증과 비슷하게 피로감으로 나타날 수 있다. 봄철 피로의 주요인이 춘곤증일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장기간의 피로가 있을 때에는 병원에 찾아가 정밀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특히 소화기는 이러한 스트레스에 민감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결국 춘곤증은 ‘몸이 아직 준비 중’이라는 우리 몸의 신호와 같기 때문에 춘곤증이 나타나는 동안에는 무리하지 말고 톡톡히 휴식을 취해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김양현 교수

〈건강프로젝트: 생생건강 365〉

[건강정보]

불면증



불면증은 수면 장애로 잠이 드는 것에 어려움이 있거나 수면을 원하는 만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때를 일컫습니다. 불면증은 의학적 증후인 동시에 증세이며, 그 자체로도 하나의 장애이지만 여러 다른 신체적/정신적 질환과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은 3~4주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으며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불면증이 지속 될 경우 인지 기능의 저하와 정서적 불안정감 등이 초래될 수 있으며 심장 질환 등의 신체적 질환에 이환될 위험성 또한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불면증 예방을 위해서는 건강한 수면 습관이 중요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수면을 취하고

기상하며 낮잠을 피하고 잠을 자는 시간 외에는 침대에 누워 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면장애에 영향을 주는 물질, 즉 수면 관련 약물, 카페인, 니코틴, 알코올 등의 복용/섭취를 주의하고 취침 전 과도한 운동이나 과식, 자극적인 영상(영화/드라마) 상영 등 수면을 방해하는 행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등의 이완 요법들이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 시 환경은 소음과 빛을 최소화하며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 습니다. 📖

도움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원은수 교수

얼굴이 변하고 손발이 커지는 말단비대증



말단비대증이란 성장기 이후에 체내의 성장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신체 말단의 뼈와 연골이 증식하고 연조직이 비후되어 손, 발, 코, 턱, 입술 등이 비대해지는 질환입니다. 성장판이 닫히지 않은 소아에서 체내에 성장호르몬을 과도하게 될 경우 말단비대증 대신 키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거인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장호르몬을 분비하는 뇌하수체에 종양이 생겨 이 종양이 성장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하여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말단비대증의 증상은 서서히 진행되는데 이마와 턱이 튀어나오고 코가 커지며 입술과 혀가 두꺼워져 특징적인 얼굴 모습으로 변하게 되며, 목소리가 두꺼워지고 손과 발 크기가 커져 장갑, 반지, 신발 등이 맞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외형적

인 변화 이외에도 당뇨병, 고혈압, 심근병증, 수면무호흡증, 대장 용종 또는 암 등이 합병증으로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으며 수명이 일반인에 비해 약 10년 정도 짧아질 수 있습니다.

진단을 위해서는 혈액검사를 통해 성장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 것과 뇌하수체 부위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통해 뇌하수체 종양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장호르몬을 과다 분비하는 뇌하수체 종양의 경우 수술을 통해 종양을 제거해야 하며, 수술을 받기 어렵거나 수술 후에도 완전히 종양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

도움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내분비내과 안지현 교수

전신에 작은 물집 생기는 수두



수두는 전신의 피부와 점막에 작은 수포 즉 물집이 생기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입니다. 수두는 varicella - zoster virus에 의해 발병하는데, 물집이 잡히기 1-2일 전부터 물집이 잡히고나서 3-7일이 지나 딱지가 질 때까지 전염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의 같은 반에서는 30%정도, 가족 내에서는 90%정도로 2차 전염률이 매우 높습니다.

수두는 감기와 비슷한 증세로 시작된 뒤, 손, 발바닥과 구강 내, 등, 온몸에 물집이 잡히면서 심한 가려움증이 온 뒤 딱지가 생기면서 점차 회복됩니다. 2차적인 합병증으로는 세균성 감염, 폐렴, 뇌염, 라이 증후군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두치료는 해열제 복용, 칼라민 로션을 물집에 발라 증상을 완화 시켜주는 것이며 면역이 저하되어 있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서는 가려운 곳을 긁지 않도록 손톱을 짧게 깎아주고 손을 자주 씻겨주어 2차 감염을 방지하고, 땀이 차거나 더우면 환부의 가려움이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서늘하게 해 줄 것, 관심이 가려운 상처부위로 가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보조적인 요법 등을 병행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12-15개월에 1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도움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소아청소년학과 유영 교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이슈&이슈]

김신곤 기획실장의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



고대병원 김신곤 기획실장이 100여명의 직원들에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야기를 전했다.

24일 오후 5시 의과대학 유광사홀에서 열린 두근두근프로젝트 3월 특강은 김신곤 기획실장의 ‘병원! 그 이상의 가치를 상상하라!’ 강연으로 펼쳐졌다.

이 날 특강은 민족을 위한 의학, 사회가 원한 연구, 세계를 향한 의술, 가장 존경받는 병원, 변화와 혁신의 상징 등 5가지 테마로 나누어 홍릉밸리, 한민족대표병원, 신관증축 등 고대병원에 대한 가치와 앞으로 안암병원이 추구하고 발전해나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신곤 기획실장은 “안암병원의 가장 빛나는 뉴스는 바로 직원 여러분이다.” 며, “안암병원의 최고 매력이 바로 여러분 개인이라는 것을 항상 유념한다면 그것이 모여 행복한 병원을 만들고, 이것이 결국 환자에게도 최상의 만족을 만들어 낼 것이다.” 고 말했다.

더불어 “환자의 고통과 아픔을 상상하는 능력이야말로 좋은 의학 연구자가 되는 첫걸음이다” 는 말을 건네며 “의료진 뿐 아니라 병원에 전 직원이 환자의 건강지킴이인만큼 항상 열린 마음으로 직원의 가치를 되새기자.” 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훈 원장과 김신곤 기획실장의 강연으로 시작된 ‘두근두근 프로젝트’ 는 앞으로 다양한 주제와 강연으로 매달 이어질 예정이다. 📌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었습니다!



고려대 안암병원(원장 김영훈)은 4일 오전 10시 안암병원에 입원 중인 세 환자에게 ‘사랑의 끝전성금’ 을 전달했다.

매번 끝전성금을 통해 지역 사회단체에 필요한 물품과 식료품을 기부했던 안암병원이 올해는 병원 내 지원이 필요한 환자 3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했다. 이번에 모인 기금은 약 900만원으로 환자에게 각 300만원씩 전달됐다.

이 날 전달식에는 김영훈 병원장의 여러 보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환자의 병동을 직접 찾아가 끝전성금을 전달하며 친근한 이야기를 건넸다. 특히 한 환자의 보호자가 감사의 보답으로 예쁜 초콜릿을 김영훈 병원장에게 선물하여 그 따뜻함을 더했다.

‘사랑의 끝전성금’ 은 매달 안암병원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꾸준히 기부활동을 이어나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

제 21회 호스피스회 정기총회 개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원장 김영훈)은 지난 26일 오전 11시 30분 문숙의학관 원형강의실에서 ‘제 21회 호스피스회 정기총회’ 를 개최했다.

김영훈 안암병원장을 비롯해 박종훈 호스피스회장, 중앙혈액내과 신상원 교수, 조운수 간호부장 등 여러 봉사자와 교직원이 함께 참석한 이번 정기 총회에서는 2014년도에 진행되었던 사업과 자원봉사자 활동을 되짚어보고, 2015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하며 올해 호스피스회의 더 나은 발전을 다짐했다. 특히 지난 해 활동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함께 보면서 추억을 되새기고 정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영훈 안암병원장과 호스피스회장 박종훈 교수는 “호스피스회가 벌써 21회를 맞이했다는 것에 정말 놀랐다.” 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봉사자들과 회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었다.” 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

고려대학교병원 진료시간표

Table with columns for Department (과 별), Doctor Name (의 사 명), Day/Time (오전, 오후), Specialty (전문 진료 과 목), and Clinic/Room (과 별, 의 사 명, 오전, 오후, 전문 진료 과 목). It lists various medical departments like Internal Medicine, Surgery, Pediatrics, and their respective staff and schedules.

희망을 디자인합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암센터

환자와 함께 2,242명의 지혜를 모았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병원, 다시 찾고 싶은 병원, 추천하고 싶은 병원
환자의 진정한 필요에 대한 수많은 고민과 노력이 담긴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암치유 희망병동입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따뜻한 변화]

암치유 희망병동 (희망겨룸 · 희망나눔 · 희망이음 병동)
 호스피스 병동 * 외국인전용병동
 희망우체국 : 환자의 소망이 담긴 메시지가 1년 뒤에 도착하는 느린 우체국
 24시간 열린 상담실 · 종교를 아우르는 기도실
 첨단장비와 다학제 협진으로 One-Stop 치료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지하철 6호선 안암(고대병원)역 1번 출구

진료예약 1577-0083